

# 영어 관계절 구문의 사용에 관한 연구\*

## -미국 미디어와 싱가포르 미디어 코퍼스를 중심으로-

이재승\*\*

- I. 서론
- II. 영어 관계절 구문
- III. 연구방법
- IV. 자료분석
- V. 결론

### • 국문초록

본 논문은 News on the Web Corpus와 World English의 코퍼스 자료를 사용하여 미국 미디어와 싱가포르 미디어에 나타나는 영어 관계절 구문의 사용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특정 담화와 관련된 코퍼스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국 미디어에 비해서 싱가포르 미디어에서는 더욱 다양한 어휘가 영어 관계절의 선행사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영어 관계절 내에 나타나는 동사의 유형은 미국 미디어와 싱가포르 미디어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코퍼스 자료를 통한 학습과 교수법은 내부계 영어와 외부계 영어의 언어적 변이를 확인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며, 나아가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상호작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이 논문은 BK21PLUS 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박사후연구원

• **주제어**

영어 관계절 구문, 언어변이, 세계영어, 담화, 코퍼스

## I. 서론

영어는 교육, 방송, 행정, 과학, 교역 등 다양한 부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국제 공용어이다. 세계영어코퍼스 자료인 Corpus of Global Web-Based English<sup>1)</sup>에는 영어를 사용하는 20개 국가들의 영어자료가 수집되어있는데, 이 중에서 오직 미국, 영국, 아일랜드,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에서만 영어가 모국어로 사용되고 있다. 나머지 국가들인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 파키스탄, 케냐, 나이지리아, 가나, 방글라데시,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리랑카, 자메이카, 탄자니아에서는 영어가 제2언어로써 사용되고 있다.

Kachru<sup>2)</sup>와 Quirk<sup>3)</sup>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들을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그룹은 ENL(English as Native Language)그룹, 또는 내부계(inner circle)로 불리는데, 영어가 모국어인 국가들로 구성되어있다. 이 첫 번째 그룹에 의해서 식민지가 된 국가들은 언어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이중언어 또는 다중언어국가가 되었다. 이 두 번째 그룹을 ESL(English as Second Language)그룹, 또는 외부계(outer circle)로 불리는데, 영어는 이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두 번째 그룹에서 국내·국제적으로 활발하게 사용되는 영어는 사회, 교육, 문화, 행정 등 수많은 부문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EFL(English as Second Language)그룹, 또는 확장계(expanding circle)로 불리는 세 번째 그룹은 영어가 모국어도 아

1) Davies, Mark., *Corpus of Global Web-Based English: 1.9 billion words from speakers in 20 countries (GloWbE)*, Available online at <https://corpus.byu.edu/glowbe>, 2013.

2) Kachru, Braj., "Standards, Codification and Sociolinguistic Realism", In *English in the World: Teaching and Learning the Language and the Literatures*, edited by Quirk, Randolph, and H. G. Widdows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in association with The British Council, 1995, pp. 11~30.

3) Quirk, Randolph, Sidney Greenbaum, Geoffrey Leech, and Jan Svartvik,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don: Longman, 1985.

니며 제2언어도 아니지만, 다른 어떠한 언어들보다 영어의 다양한 장점을 인지하고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들이다. 해당 국가로는 한국, 일본, 중국 이외에도 대만, 인도네시아, 그리스,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짐바브웨 등이 이 세 번째 그룹에 포함된다.

영어를 사용하는 세 그룹의 국가들을 살펴보면 전 세계적으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국가들에서 영어가 훨씬 더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표준영어’라는 기준은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영어를 사용하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sup>4)</sup>

지금까지 영어의 변이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영어가 모국어인 내부계에 속하는 미국영어와 영국영어를 다루거나,<sup>5)</sup> 외부계에서 사용하는 영어들을 다루어왔다.<sup>6)</sup> 하지만 내부계에서 사용하는 영어와 외부계에서 사

4) Ibid., pp. 2~3.

5) 김영길, 「미국 영어의 일반적인 특색」, 『영어교육연구』 12, 1992, 61~95쪽; 박수진·전종호, 「미국 영어 전이음의 비대칭적 분포」, 『어학연구』 37-3, 2001, 603~628쪽; 손중동, 「미국 영어의 특성에 관한 고찰」, 『영어영문학연구』 46-1, 2004, 109~142쪽; 송경숙, 「영국 영어의 특성: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아일랜드를 중심으로」, 『언어연구』 20-2, 2004, 85~107쪽; Guy, Gregory R., and Robert Bayley. “On the choice of relative pronouns in English”, *American Speech*, Vol. 70, No. 2, 1995, pp. 148~162; Roland, Douglas, Frederic Dick, and Jeffrey L. Elman, “Frequency of basic English grammatical structures: A corpus analysis”,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Vol. 57, No. 3, 2007, pp. 348~379.

6) Friginal, Eric, “Outsourced Call Centers and English in the Philippines”, *World Englishes*, Vol. 26, No. 3, 2007, pp. 331~345; Sedlatschek, Andreas, *Contemporary Indian English: Variation and Change*.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2009; Lim, Lisa, and Nikolas Gisborne, *The Typology of Asian Englishes*,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2011; Suárez-Gómez, Cristina. “Relative Clauses in Southeast Asian Englishes”, *Journal of English Linguistics*, Vol. 42, No. 3, 2014, pp. 245~268; Bao, Zhiming, *The Making of Vernacular Singapore English: System, Transfer, and Filt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5; Coto-Villalibre, Eduardo, “A Look at Participial Constructions with Get in Hong Kong English”, In *Corpus Linguistics on the Move: Exploring and Understanding English through Corpora*, edited by López-Couso, María, Belén Méndez-Naya, Paloma Núñez-Pertejo, and Ignacio M. Palacios-Martínez, Leiden: Brill Rodopi, 2016, pp. 204~226; Elsness, Johan., “English in South Africa: The Case of

용하는 영어를 비교한 연구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sup>7)</sup>

본 연구에서는 내부계에 속하는 미국영어와 외부계에 속하는 싱가포르 영어를 통하여 특정한 문법장치인 영어 관계절 구문의 사용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영어 관계절은 독자와 청자에게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하게 만드는 중요한 수식표현(modification)이다.<sup>8)</sup>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이루어진다. 2장에서는 미국 미디어와 싱가포르 미디어에서 살펴볼 영어 관계절 구문의 통사적 및 어휘적 특성에 관해서 고찰한다. 3장에서는 두 미디어에 나타나는 영어 관계절 구문의 사용을 비교분석하기 위해서 사용된 연구 방법에 대해서 논의한다. 4장에서는 연구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미국 미디어에서 사용된 영어 관계절 구문과 싱가포르 미디어에서 사용된 영어 관계절 구문을 비교분석하고 그 결과를 논의한다.

## II. 영어 관계절 구문

영어의 명사구는 앞에서 수식을 받을 수 있고, 뒤에서 수식을 받을 수 있다. 아래 예문 (1)-(4)<sup>9)</sup>를 살펴보자.

---

Past-Referring Verb Forms”, In *Corpus Linguistics on the Move: Exploring and Understanding English through Corpora*, edited by López-Couso, María, Belén Méndez-Naya, Paloma Núñez-Peretejo, and Ignacio M. Palacios-Martínez, Leiden: Brill Rodopi, 2016, pp. 181~203.

- 7) Ko, Edwin, “The Role of Geography in Syntactic Variation: A Corpus-based Analysis of Adverb Position across Varieties of English Worldwide”, *University of Pennsylvania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Vol. 22, No. 2, 2016, pp. 111~120; Heller, Benedikt, Benedikt Szmrecsanyi, and Jason Grafmiller, “Stability and Fluidity in Syntactic Variation World-Wide: The Genitive Alternation Across Varieties of English”, *Journal of English Linguistics*, Vol. 45, No. 1, 2017, pp. 3~27.
- 8) 이재승 · 이상도, 「영어 미디어에서 사용된 영어 관계절 구문에 대한 코퍼스 기반 연구」, 『외국학연구』 42, 2017, 103~126쪽.
- 9) Leech, Geoffrey, and Jan Svartvik, *A Communicative Grammar of English*, London: Pearson Education, 2002, p. 364.

- (1) There are plenty of bright people here.
- (2) We had to support the developing countries.
- (3) I remember the retired teacher.
- (4) The passenger liner dropped anchor in the harbour.

예문 (1)의 형용사 *bright*는 명사 *people*을 수식하고, 예문 (2)에서는 현재분사 *developing*이 명사 *countries*를 수식하고 있다. 그리고 예문 (3)에서 과거분사 *retired*가 명사 *teacher*를 수식하고 있으며, 예문 (4)에서는 명사 *passenger*가 명사 *liner*를 수식한다. 이와 같이 명사구가 명사, 형용사, 현재분사, 과거분사의 전치수식(premodification)을 받는 것처럼, 다음 예문 (5)-(11)<sup>10</sup>과 같이 후치수식(postmodification)도 받을 수 있다.

- (5) There is nothing new about these techniques.
- (6) Where is the way out?
- (7) There is no getting away from the fact [that inflation is causing hardship].
- (8) A man [wearing a grey suit ] left the office.
- (9) The question [debated in Parliament yesterday] was about the new tax.
- (10) I've got something [to say to you].
- (11) The parents wanted to meet the boy [who was going out with their daughter].

예문 (5)에서 형용사 *new*가 명사 *nothing*을 수식하고, 예문 (6)에서는 부사 *out*이 명사 *way*를 수식하고 있다. 그리고 예문 (7)에서 동격절 *that inflation is causing hardship*이 명사 *fact*를 수식하고 있으며, 예문 (8)에서 명사 *man*을 현재분사절 *wearing a grey suit*이 수식한다. 또한 예문 (9)에서 과거분사절 *debated in Parliament yesterday*가 명사 *question*을 수식하고

---

10) Ibid., pp. 360~361.

있고, 예문 (10)에서 명사 *something*을 부정사절 *to say to you*가 수식하며, 예문 (11)에서는 관계절 *who was going out with their daughter*가 명사 *boy*를 수식한다. 예문 (11)의 관계절에는 *be*동사의 과거형 *was*, 진행상 *going*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관계절에는 특정한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와 시간적인 의미, 진행 및 완료상황을 나타내는 장치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예문 (1)-(11)에 나타난 수식어들 중에서 제일 명확하게 명사를 수식하는 문법장치로 볼 수 있다.<sup>11)</sup> 이는 관계절이라는 문법장치를 통해서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분석하여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먼저 아래 예문 (12)-(15)<sup>12)</sup>에서 관계절의 선행사를 살펴보자.

(12) There are hundreds Falkirk fans [who are demanding that the Deans sell their shares in the club].

(13) There was a slight, furtive boy [whom no one knew].

(14) The lowest pressure ratio [which will give an acceptable performance] is always chosen.

(15) I had more friends [that were boys].

예문 (12)에서는 관계절이 수식하는 명사, 즉 선행사가 사람을 의미하며, 관계절 내에서 주어역할을 하므로 관계대명사 *who*가 사용되었고, 예문 (13)에서 관계절의 선행사도 사람을 의미하지만, 관계절 내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므로 관계대명사 *whom*이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예문 (14)에서 선행사는 사람이 아닌 사물을 가리키므로 관계대명사 *which*가 사용되었고, 예문 (15)에서는 주어 역할 및 목적어 역할 그리고 사람 및 사물 선행사에 모두 사용되는 관계대명사 *that*이 사용된 것을 확

11) Quirk et al., op. cit., p. 1243.

12) Biber, Douglas, Stig Johansson, Geoffrey Leech, Susan Conrad, and Edward Finegan, *Longman Grammar of Spoken and Written English*, Cambridge: MIT Press, 1999, pp. 608~615.

인할 수 있다.

Biber et al.<sup>13)</sup>에 의하면 신문과 학술 장르에서 영어 관계절의 선행사로 *people, boys, children, teenager(s), students(s), person, man, men, woman, women, boy, girls*가 나타났으며, 구어 장르에서는 *people, woman, women, man, men, girl, girl(s), boy(s), person*이 영어 관계절의 선행사로 나타났다.

관계절 내에 나타나는 동사구를 살펴보면, 예문 (13)과 (15)는 동사 *knew*와 *were*를 통해서 행동이 발생하는 시간을 나타낸다. 그리고 예문 (12)에서 *be*동사인 *are*과 진행상 *demanding*을 사용해서 시간과 진행상황을 나타내며, 예문 (14)에서는 조동사 *will*을 통해서 서법성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미디어와 싱가포르 미디어에서 나타나는 영어 관계절의 선행사와 영어 관계절 내의 동사구와 관련하여 영어 관계절 구문의 사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 Ⅲ.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연구자료는 ‘브렉시트 캠페인 코퍼스’<sup>14)</sup>이다. ‘브렉시트 캠페인 코퍼스’는 News on the Web Corpus<sup>15)</sup>을 통해서 영국에서 브렉시트 국민투표의 캠페인이 시작된 날부터 국민투표 전 날까지 (2016년 4월 15일에서 6월 22일) 발행된 신문 및 잡지기사 중에서 ‘brenxit’가 포함되는 기사만을 추출한 자료이다. 이 중에서 미국에서 발행된 신문

---

13) Ibid., pp. 612~613.

14) 이재승, 「브렉시트 캠페인 기간 동안 영어 미디어에 나타난 이민자들」, 『비교문화연구』 45, 2016, 325~348쪽.

15) Davies, Mark, *Corpus of News on the Web (NOW): 3+ billion words from 20 countries, updated every day*, Available online at <https://corpus.byu.edu/now>, 2013; News on the Web Corpus(NOW)는 20개 국가에서 발행하는 신문 및 잡지 기사를 모은 코퍼스이며, Google News를 통해서 2010년부터 매일 새로운 기사들이 업데이트되고 있다.



및 잡지기사만을 수집한 ‘미국-브렉시트 캠페인 코퍼스(이하 미국 코퍼스)’와 싱가포르에서 발행된 신문 및 잡지기사만을 모은 ‘싱가포르-브렉시트 캠페인 코퍼스(이하 싱가포르 코퍼스)’를 선택하였다. ‘미국 코퍼스’는 전체 364개의 기사와 323,648개의 단어로 구성되었고, ‘싱가포르 코퍼스’는 전체 449개의 기사와 235,785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

‘브렉시트’ 담화를 연구자료로 삼은 이유는 ‘브렉시트’는 지구촌에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이기에 동일한 상황이 나타나는 담화 속에서 내부계의 영어와 외부계의 영어의 사용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브렉시트’는 미국과 싱가포르에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므로, 각 국가에서 중요시하는 부분들을 관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래 예문 (16)<sup>16)</sup>에 나타난 것처럼 관계대명사 *who*가 이끄는 주격 관계절을 다룰 것이다.

(16) The man who came to dinner turned out to be from my home town.

이는 ‘브렉시트’라는 동일한 사건을 다룬 담화에서 관계절이라는 문법 장치를 사용하여 어떠한 인물들을 명확하게 기술하려고 하였는지, 그리고 관계절에 나타나는 인물들의 행동을 보여주는 동사들을 분석하고자 함이다. 다음 장에서는 브렉시트 담화의 미국 영어자료와 싱가포르 영어자료를 통해서 영어 관계절의 선행사와 영어 관계절 내의 동사구와 관련하여 영어 관계절 구문의 사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6) Huddleston, Rodney, and Geoffrey Pullum, *The Cambridge Grammar of English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p. 1044.

#### IV. 자료분석

미국 미디어와 싱가포르 미디어에 나타난 영어 관계절의 선행사들이 아래 <표 1>에 제시되었다.

	<i>analyst, artists, audiences, Austrian, blackmailers, Brexiteers, Brits, character, children, citizen, commentator, deputy, donors, employees, economist(s), families, gold bulls, groups, guys, immigrants, individual, intellectuals, investors, lawmaker, lawyer, leader, Lithuanian, man, mayor, members, migrants, minister, ones, others, people, person, politician(s), president, regulars, respondents, signatories, students, voters, witness, woman, workers</i>
	<i>academic, Asians, Americans, advertisers, analyst, banker, barrister, Britons, businessman, campaigners, congress woman, customers, citizen, civil servant, colleagues, East Enders, economists, employees, English person, entrepreneur, experts, foreigner, government minister, guy, individuals, inhabitants, investors, investment chief, Irish workers, Latvian, lawmaker, lawyer, leaders, lebertarian, Londoners, man, member of Parliament, migrants, one from Treasury, opponents, owners, people, person, politicians, pound bulls, Polish premier, Prime Minister, providers, richest men, rivals, Social Democrat, Spaniard, spokesman, students, supporters, teacher, those, traders, voters</i>

위 <표 1>에 의하면 미국 미디어에 나타난 영어 관계절은 46개의 서로 다른 어휘를 수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에 나타나는 예문 (17)-(19)은 <표 1>에 제시된 선행사들을 포함하는 영어 관계절 구문들이 실제로 미국 미디어의 브렉시트 담화에 나타난 예시이다.

- (17) During a televised program on Brexit, an audience member compared Prime Minister David Cameron to the British

- leader who tried to appease Adolf Hitler in order to avoid war. (2016-06-20, MarketWatch)
- (18) Brits who argue that the country would be safer in the EU cite intelligence-sharing between member states as a key element of their domestic strategy. (2016-05-08, International Business Times)
- (19) I went to many seminars on globalization in the '80s and '90s; never did I hear one word about retraining for new jobs, or one iota of sympathy from the intellectuals who pushed the policy but never suffered from it. (2016-05-27, The Tand D.com)

그리고 위 <표 1>에 의하면 싱가포르 미디어에 나타난 영어 관계절은 59개의 서로 다른 어휘를 수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에 나타나는 예문 (20)-(22)은 <표 1>에 제시된 선행사들을 포함하는 영어 관계절 구문들이 실제로 싱가포르 미디어의 브렉시트 담화에 나타난 예시이다.

- (20) An analysis by political scientist Matthew Goodwin of the University of Kent, using polling data from YouGov, found that 43 percent of those firmly committed to voting “Leave” in the referendum were people who felt more English than British. (2016-05-05, Channel News Asia)
- (21) They, like some 1.3 million citizens between the ages of 18 and 35 from other European Union countries who live in Britain, are hedging their bets and pondering strategies in case Britain votes to leave the EU on June 23. (2016-05-16, The Straits Times)
- (22) However, many Londoners who have spoken to CNBC in recent days still give a sense that the vote could go either way. (2016-06-22, AsiaOne)

<표 1>에 나타난 선행사들을 분석해보면, 미국 미디어와 싱가포르 미디어에서 공통적으로 *analyst, citizen, guy, individual, investors, lawmaker, leader(s), man, people, person, politician(s), student(s), voters*가 관계절의 수식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에서 *guy, individuals, man, people, person*과 같은 의미적으로 가벼운 어휘<sup>17)</sup>들이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특정 지역 및 국가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어휘가 선행사로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 미디어에서는 *Austrian, Brits, Lithuanian*과 같은 세 어휘만이 영어 관계절의 수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싱가포르 미디어에서는 *Asians, American, Britons, East Enders, English person, Irish workers, Latvian, Londoners, Polish premier, Spaniard*처럼 미국 미디어에 비해서 더욱 다양한 어휘들이 영어 관계절의 수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싱가포르는 모두 다문화국가이지만, 두 미디어를 통한 브렉시트 담화의 분석 결과 싱가포르 미디어에서 다양한 지역 및 국가의 사람들에게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미국 미디어와 싱가포르 미디어의 영어 관계절 내에 나타나는 동사들을 살펴보았다. 아래 <표 2>에 제시된 것처럼 두 미디어의 영어 관계절 내에 나타나는 동사들은 Biber et al.<sup>18)</sup>를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분류되었다.

---

17) Wasow, Thomas, T. Florian Jaeger, and David Orr, "Lexical variation in relativizer frequency", In *Expecting the unexpected: Exceptions in grammar*, edited by Simon, Horst, and Heike Wies, Berlin: Mouton De Gruyter, 2011, pp. 175~196.

18) Biber, Douglas, Stig Johansson, Geoffrey Leech, Susan Conrad, and Edward Finegan, *Longman Grammar of Spoken and Written English*, Cambridge: MIT Press, 1999, pp. 360~364.

19)

(ACTIVITY)	<i>bring, buy, carry, come, give, go, leave, move</i>
(MENTAL)	<i>think, know, want, see, read, hear, love</i>
(COMMUNICATION)	<i>ask, announce, call, discuss, explain, say, speak</i>
(CAUSATION)	<i>allow, cause, enable, force, help, let, require</i>
(OCCURRENCE)	<i>become, change, happen, develop, grow, occur</i>
(EXISTENCE)	<i>seem, appear, exist, live, stay, include, represent</i>
(ASPECTUAL)	<i>begin, continue, finish, keep, start, stop</i>

먼저 미국 미디어의 영어 관계절 내에 나타나는 동사들은 Biber et al.<sup>20)</sup>에 따라 분류되어 아래 <표 3>처럼 제시되었다.

<i>attend, beat, campaign, defend, do, earn, enter, epitomize, film, get, lose, make, move, play, push, take, try</i>	<i>enjoy, harass, intend, favor, feel, pledge, rely, see, serve, think, understand want, wish</i>	<i>argue, say, teach</i>	<i>have, inhabit, survive</i>	<i>espouse, support</i>	<i>become</i>
---	---	----------------------------------	---------------------------------------	-----------------------------	---------------

19) Ibid., pp. 360~364.

20) Ibid., pp. 360~364.

위 <표 3>에 따르면 영어 관계절 내에 나타난 동사들을 7유형으로 분류한 결과, 미국 미디어에서 각 동사유형이 사용되는 빈도는 활동동사(17/43.6%) > 관념동사(13/33.3%) > 의사소통동사=존재동사(3/7.7%) > 인과동사(2/5.1%) > 발생 동사(1/2.6%)의 순서로 나타났다. 미국 미디어의 영어 관계절에서는 상 동사유형에 해당하는 동사들이 나타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싱가포르 미디어의 영어 관계절 내에 나타나는 동사들을 Biber et al.<sup>21)</sup>에 따라 분류하여 아래 <표 4>에 제시하였다.

<i>apply,</i>	<i>authorize,</i>				
<i>break,</i>	<i>believe,</i>				
<i>chair,</i>	<i>decide,</i>				
<i>campaign,</i>	<i>dissatisfy,</i>				
<i>come,</i>	<i>expect,</i>				
<i>do business,</i>	<i>fail,</i>				
<i>go around,</i>	<i>favour,</i>				
<i>hold,</i>	<i>feel,</i>	<i>argue,</i>			
<i>leave,</i>	<i>hear,</i>	<i>ask,</i>	<i>have,</i>		
<i>meet,</i>	<i>hope,</i>	<i>say,</i>	<i>live,</i>	<i>back,</i>	
<i>migrate,</i>	<i>know,</i>	<i>speak,</i>	<i>sound,</i>	<i>help,</i>	
<i>miscalculate,</i>	<i>manage,</i>	<i>talk,</i>	<i>survive,</i>	<i>support</i>	<i>start</i>
<i>move,</i>	<i>organise,</i>	<i>wrangle,</i>	<i>cover</i>		
<i>oversee,</i>	<i>prefer,</i>	<i>write</i>			
<i>pay,</i>	<i>research,</i>				
<i>poll,</i>	<i>rely,</i>				
<i>send,</i>	<i>rest,</i>				
<i>shoot,</i>	<i>see,</i>				
<i>sit,</i>	<i>think,</i>				
<i>survey,</i>	<i>value,</i>				
<i>trade,</i>	<i>understand,</i>				
<i>work</i>	<i>want</i>				

21) Ibid., pp. 360~364.

위 <표 4>에 따르면 영어 관계절 내에서 나타난 동사들을 7유형으로 분류한 결과, 싱가포르 미디어에서 각 동사유형이 사용되는 빈도는 활동동사(23/43.6%) > 관념동사(21/35%) > 의사소통동사(7/11.7%) > 존재동사(5/8.3%) > 인과동사(3/5.0%) > 상 동사(1/1.7%)의 순서로 나타났다. 싱가포르 미디어의 영어 관계절에서는 상 동사유형에 해당하는 1종류의 동사가 출현하였지만, 발생 동사유형에 해당하는 동사들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미국 미디어와 싱가포르 미디어의 두 경우를 비교해볼 때 싱가포르 미디어의 영어 관계절이 전반적으로 각 동사유형마다 더욱 다양하고 풍부한 동사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활동동사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자. 미국 미디어와 싱가포르 미디어에서 공통적으로 *campaign, do, move*가 영어 관계절에서 나타났다. 미국 미디어의 활동동사 유형에 속하는 동사들 *beat, defend, lose*는 부정·소극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earn, get*는 긍정·적극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로 간주할 수 있다. 그리고 싱가포르의 활동동사 유형에 속하는 동사들 *break, miscalculate, shoot*는 부정·소극적인 의미를 나타내며, *organise*는 긍정·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관념동사를 살펴보자. 미국 미디어와 싱가포르 미디어에서 공통적으로 *favor, feel, rely, see, think, understand, want*가 영어 관계절에 나타났다. 미국 미디어의 관념동사 유형에 속하는 동사 *harass*는 부정·소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는 볼 수 있으며, *enjoy*는 긍정·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로 간주할 수 있다. 그리고 싱가포르의 관념동사 유형에 속하는 동사들 *dissatisfy, fail*은 부정·소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로 볼 수 있으며, *decide, expect, favour, hope, prefer, rely, rest, value, understand, want*는 긍정·적극적인 의미의 동사로 간주할 수 있다.

##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미국 미디어 코퍼스과 싱가포르 미디어 코퍼스를 대상으로, 영어 관계절의 선행사와 영어 관계절 내의 동사구와 관련하여 영어 관계절 구문의 사용양상을 비교분석하였다. 본 비교분석 연구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서로 다른 어휘 및 문법장치를 통해서 묘사할 수 있다는 Stubbs<sup>22)</sup>와 부합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미국 미디어와 싱가포르 미디어에 나타난 영어 관계절의 선행사들을 분석한 결과, 싱가포르 미디어에서 더욱 다양한 선행사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 미디어와 비교해볼 때, 특정한 지역 및 국가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더 많은 명사들이 싱가포르 미디어에서 영어 관계절의 선행사로 사용되었다. 게다가 싱가포르 미디어의 영어 관계절은 금융 및 경제와 관련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많은 명사들을 선행사로 수식하고 있었다. 이는 ‘브렉시트’ 담화배경에서 미국 미디어보다 싱가포르 미디어에서 ‘브렉시트’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 경제상황에 더욱 관심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차별화된 어휘의 사용은 지역적 그리고 문화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둘째, 미국 미디어와 싱가포르 미디어의 영어 관계절에 나타나는 동사들을 일곱 유형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싱가포르 미디어에서 미국 미디어보다 더욱 풍부한 동사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국 미디어와 싱가포르 미디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동사들은 대부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리고 미국 미디어와 비교했을 때 싱가포르 미디어에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미의 관동사

---

22) Stubbs, Michael, "Collocations and Semantic Profiles: On the Cause of the Trouble with Quantitative Studies", *Functions of language*, Vol. 2, No. 1, 1995, pp. 23~55; Stubbs, Michael, *Text and Corpus Analysis: Computer-assisted Studies of Language and Culture*, Oxford: Blackwell, 1996; Stubbs, Michael, *Words and Phrases: Corpus Studies of Lexical Semantics*, Oxford: Blackwell, 2001.



유형의 동사들이 훨씬 많이 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미디어에 비해서 싱가포르 미디어의 영어 관계절이 전반적으로 각 동사유형마다 더욱 다양하고 풍부한 동사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영어 관계절이라는 문법장치가 미국 미디어와 싱가포르 미디어에서 상이하게 나타나는 본 연구를 통해서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위한 기존의 영어학습에서 다양한 지역 및 국가의 사람들과의 교류를 위한 영어학습에도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코퍼스 자료를 활용한 학습 및 교수법은 내부계 영어와 외부계 영어의 언어적 변이를 확인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나아가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상호작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선행 연구들이 언어적 변이에 관하여 내부계 또는 외부계의 한 영역만을 다룬 것과는 달리 본 연구는 다양한 민족성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다문화국가라는 공통점을 가진 두 국가, 미국과 싱가포르를 선택하여, 내부계와 외부계를 함께 다루어 비교분석함으로써 연구 영역을 확대하였고, 세계영어학습 및 교수법에 대해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 내부계와 외부계에 속하는 다른 국가들의 자료를 통한 분석을 추가하고, 다양한 주제의 담화를 다루면서 언어학적인 분석을 진행하면, 영어 관계절 구문의 특성을 더욱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 참고문헌

### <자료>

Davies, Mark, *Corpus of Global Web-Based English: 1.9 billion words from speakers in 20 countries (GloWbE)*, Available online at <https://corpus.byu.edu/glowbe>. 2013.

\_\_\_\_\_, *Corpus of News on the Web (NOW): 3+ billion words from 20 countries, updated every day*, Available online at <https://corpus.byu.edu/nw.2013>

### <연구논저>

김영길, 「미국 영어의 일반적인 특색」, 『영어교육연구』 12, 1992, 61~95쪽.  
박수진·전종호, 「미국 영어 전이음의 비대칭적 분포」, 『어학연구』, 37-3, 2001, 603~628쪽.

손중동, 「미국 영어의 특성에 관한 고찰」, 『영어영문학연구』 46-1, 2004, 109~142쪽.

송경숙, 「영국 영어의 특성: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아일랜드를 중심으로」, 『언어연구』 20-2, 2004, 85~107쪽.

이재승, 「브렉시트 캠페인 기간 동안 영어 미디어에 나타난 이민자들」, 『비교문화연구』 45, 2016, 325~348쪽.

이재승·이상도, 「영어 미디어에 사용된 영어 관계절 구문에 대한 코퍼스 기반 연구」, 『외국학연구』 42, 2017, 103~126쪽.

Bao, Zhiming, *The Making of Vernacular Singapore English: System, Transfer, and Filt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5.

Biber, Douglas, Stig Johansson, Geoffrey Leech, Susan Conrad, and Edward

- Finegan, *Longman Grammar of Spoken and Written English*, Cambridge: MIT Press, 1999.
- Coto-Villalibre, Eduardo, “A Look at Participial Constructions with Get in Hong Kong English”, In *Corpus Linguistics on the Move: Exploring and Understanding English through Corpora*, edited by López-Couso, María, Belén Méndez-Naya, Paloma Núñez-Pertejo, and Ignacio M. Palacios-Martínez, Leiden: Brill Rodopi, 2016, pp. 204~226.
- Elsness, Johan., “English in South Africa: The Case of Past-Referring Verb Forms”, In *Corpus Linguistics on the Move: Exploring and Understanding English through Corpora*, edited by López-Couso, María, Belén Méndez-Naya, Paloma Núñez-Pertejo, and Ignacio M. Palacios-Martínez, Leiden: Brill Rodopi, 2016, pp. 181~203.
- Friginal, Eric, “Outsourced Call Centers and English in the Philippines”, *World Englishes*, Vol. 26, No. 3, 2007, pp. 331~345.
- Guy, Gregory R., and Robert Bayley, “On the choice of relative pronouns in English”, *American Speech*, Vol. 70, No. 2, 1995, pp. 148~162.
- Heller, Benedikt, Benedikt Szmrecsanyi, and Jason Grafmiller, “Stability and Fluidity in Syntactic Variation World-Wide: The Genitive Alternation Across Varieties of English”, *Journal of English Linguistics*, Vol. 45, No. 1, 2017, pp. 3~27.
- Huddleston, Rodney, and Geoffrey Pullum, *The Cambridge Grammar of English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 Kachru, Braj, “Standards, Codification and Sociolinguistic Realism”, In *English in the World: Teaching and Learning the Language and the Literatures*, edited by Quirk, Randolph, and H. G. Widdows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in association with The British Council, 1995, pp. 11~30.

- Ko, Edwin, “The Role of Geography in Syntactic Variation: A Corpus-based Analysis of Adverb Position across Varieties of English Worldwide”, *University of Pennsylvania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Vol. 22, No. 2, 2016, pp. 111~120.
- Leech, Geoffrey, and Jan Svartvik, *A Communicative Grammar of English*, London: Pearson Education, 2002.
- Lim, Lisa, and Nikolas Gisborne, *The Typology of Asian Englishes*,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2011.
- Roland, Douglas, Frederic Dick, and Jeffrey L. Elman, “Frequency of basic English grammatical structures: A corpus analysis”,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Vol. 57, No. 3, 2007, pp. 348~379.
- Sedlatschek, Andreas, *Contemporary Indian English: Variation and Change*,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2009.
- Stubbs, Michael, “Collocations and Semantic Profiles: On the Cause of the Trouble with Quantitative Studies”, *Functions of language*, Vol. 2, No. 1, 1995, pp. 23~55.
- \_\_\_\_\_, *Text and Corpus Analysis: Computer-assisted Studies of Language and Culture*, Oxford: Blackwell, 1996.
- \_\_\_\_\_, *Words and Phrases: Corpus Studies of Lexical Semantic*, Oxford: Blackwell, 2001.
- Suárez-Gómez, Cristina, “Relative Clauses in Southeast Asian Englishes”, *Journal of English Linguistics*, Vol. 42, No. 3, 2014, pp. 245~268.
- Quirk, Randolph, “The English language in a global context”, In *English in the World: Teaching and Learning the Language and the Literatures*, edited by Quirk, Randolph, and H. G. Widdows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in association with The British Council, 1995, pp. 1~10.

\_\_\_\_\_, Sidney Greenbaum, Geoffrey Leech, and Jan Svartvik,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don: Longman, 1985.

Wasow, Thomas, T. Florian Jaeger, and David Orr, “Lexical variation in relativizer frequency”, In *Expecting the unexpected: Exceptions in grammar*, edited by Simon, Horst, and Heike Wies, Berlin: Mouton De Gruyter, 2011, pp. 175~196.

# **A Study of the Use of the English Relative Clause Constructions**

-Focusing on American Media and  
Singaporean Media Corpus-

Lee, Jae Seung\*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nvestigate the use of English relative clause constructions in the American media and Singaporean media on the basis of data collected from News on the Web Corpus and World English. The corpus analyses show that relative clauses' antecedents in Singaporean media have various vocabularies related to economics or finance and specific regional or national people. Moreover, It is found that verb types can affect the choice between American English and Singaporean English as English variation. The relative clauses' 6 verb types in Singaporean media have various verbs with positive and active meanings. This paper claims that English learning and pedagogy through corpus materials enables one to identify language variation between English from inner circles and that from outer circles. This kind of English learning and pedagogy could increase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interaction all over the world.

Key words: Relative Clause Constructions, Language Variation,  
World Englishes, Discourse, Corpus

---

\*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Pusan National University

필자 E-Mail: jsen@pusan.ac.kr

투고일: 2020년 07월 07일 / 심사완료일: 2020년 08월 02일 / 게재확정일: 2020년 08월 03일

